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1. 27(화)】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작성자	과장	강진태		
			사무관	김현우	주무관	이우희
		연락처	054-880-2338			

경북도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미포미행(美浦味行)길 조성한다

- 국방부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km(경북 7.1km) 철거 발표 -
- 동해안 포구(浦口)마을, 철책철거지역 트레킹, 맛 기행 테마관광 개발 -

경상북도는 노후된 군(軍) 경계철책 존치로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출입 통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해안경계철책을 철거한 후 미포미행(美浦味行)길을 조성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없애는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거될 전국의 해·강안 철책 길이는 284km에 달하며, 경북은 울진군 4개 구간 7.1km가 해당된다.

* 후정해수욕장~죽변항(L=1.7km), 울진(대나리)~은어교(L=1.4km), 기성 사동항 ~ 기성항(L=2.7km), 기성 기성항~봉산리(봉수동)(L=1.3km)

경북도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군(軍)의 첨단화로 해안경계 방식이 바뀌고 전방지역의 철책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내 해안경계 철책을 신속히 철거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 및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민안전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17일(수) 동해안지역 4개 시군 재난부서와 읍면장 회의에서 동해안 국도4차선 확장 개통 이후 방치되어 있는 해안 구(舊) 도로를 활용해 주민 안전보행 시설과 경관정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은 11월초 국회와 군(軍) 관계자를 방문해 철거를 건의했으며, 경북도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로 신설되는 철도역과 연계해 그 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현지 주민의 통행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동해안 일석이조 안전사고 예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11월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계철책 구간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트레킹, 라이딩, 바이크로드와 연계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파랑길 제안으로 잘 알려진 ‘우리땅 걷기’ 신정일 대표는 “경북 동해안 중 울진 월송정에서 망양리까지 통제된 구간을 철거 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금강산의 해금강 보다 더 아름다운 구간”이라며 “이를 관광자원화하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마을 보행자 전용거리, 해안경비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조성, 미포(美浦) 해안 트레킹길 조성, 안전한마을 쉼터(Shelter)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안전경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